



DIOCESE OF
SAN JOSE

Office of the Bishop

친애하는 산 호세 신앙 공동체 여러분께: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산타클라라 카운티는 시애틀 지역과 더불어 미국 내 코로나바이러스 Coronavirus (COVID-19) 의 감염 진원지였습니다. 지난 몇 주간 산 호세 교구는 산타클라라 보건기구의 도움을 받아 코로나바이러스에 대처해 왔고 또한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250명 이상의 모임이나 집회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리기도 하였습니다. 나는 지역 보건 당국의 위원들과 심사숙고한 결과 현 상황이 광범위한 전염병 단계에 이르렀고, 또 양성 반응이 검출되는 환자들이 기하 급수적으로 높아질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교구의 최우선 목표는 남녀노소를 불구하고 모든 신자의 건강과 안녕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심혈을 기울이기 위하여 3월 13일부터 3월 27일까지 교구 내의 모든 부속 학교를 임시 휴교 조치시켰습니다. **이에 추가로 나는 산 호세 내의 모든 성당과 공소, 경당에서의 모든 미사를 3월 14 일부로 후속 지침이 있을 때까지 임시 중단시키기로 하였습니다.** 세례성사와 혼인성사, 장례 미사는 계속하되 가족 외에는 참석하지 않도록 권고하며 성경 공부 등을 비롯한 모든 본당의 행사를 후속 지침이 있을 때까지 중단시킵니다.

이에 나는 이 기간 동안, 산 호세 내의 모든 신자의 미사 참석의 의무를 정지시키는 관면을 내립니다.

비록 미사 참여가 금지 되었어도 나는 모든 신자에게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것으로 공동체의 의미를 다시 새기고 교구 내의 몇몇 본당들의 인터넷으로 송출되는 주일 미사를 보기를 권장합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교구의 웹사이트인 dsj.org/coronavirus 를 열람하시길 바랍니다.

이런 어려운 시기에 나는 사제들과 부제들 수도회와 모든 본당 인력에게 격리된 사람들과 연로한 신자와 병자들에게 각별한 관심을 가지도록 권고하고 사제들이 고해성사와 병자성사를 집전할 수 있도록 하며 본당이 소셜미디어나 전화 등으로 계속하여 신자들을 안내하고 격려하기를 바랍니다. 공동체로 모여 영성체를 나눌 수 없음에 깊은 슬픔을 느끼지만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항상 우리 안에 머무심을 기억하고 특히 이런 고난과 환난 속에서 우리와 함께하심을 명심하여야 합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Oscar Cantú주교.